

뉴멕시코주  
한인을 위한

#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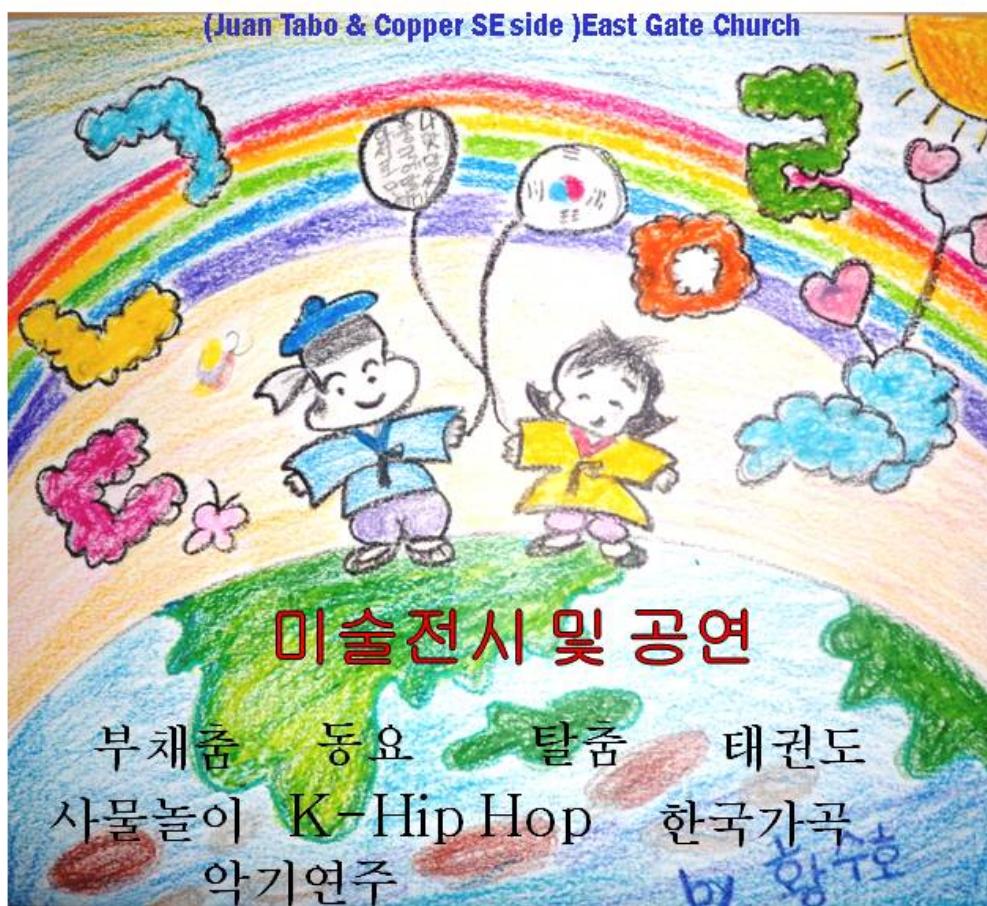
4/5월호  
2012

## 뉴멕시코 주 한인회 소식

뉴멕시코한국학교 후원을 위한 문화의 밤

Saturday, May 12<sup>th</sup> 2012 at 5:30pm

12120 Cooper Ave. NE ABQ NM 87123



### 뉴멕시코주 한인회 협찬

#### 후원

김두남 한인회장  
임낸시 한인회 부회장  
아리랑 마켓  
A-1 마켓  
Kim's market  
김영신 부동산  
이준 부동산  
최귀분 부동산  
박파인아트

레인보우치과 (황경성)  
뉴 라이프 한의원 (Dr. 장)  
Kim Master Barber Shop  
Nob Hill Barber (Sunny)  
Jasmine Café  
Huong Thao  
다이나믹 태권도  
정혜어살롱(홍정희)  
Sizzler 식당  
Sushi & Sake

**Ticket \$ 10**

티켓구입 - 각 마켓

아리랑, 김스, A-1

문의- 515-4211

공연후 간단한 저녁식사가 있습니다.

**Festival of Asian Cultures**

**2012**

Sunday May 20, 10:30 a.m. - 4 p.m.  
Harry E. Kinney Civic Plaza  
**FREE ADMISSION**

**Music • Dance • Food • Educational Activities**

Participating Cultural Groups Include:  
**Cambodian, Chinese, Filipino, Hawaiian, Indonesian, Japanese, Korean, Lao, Middle Eastern, Nepali, Tahitian, Thai, Vietnamese and more!**

For Information: 505.332.9249, 505.507.2179 or 311  
(NM relay or 711)  
[www.cabq.gov/cultural-services](http://www.cabq.gov/cultural-services)

Presented by Asian 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 and the City of Albuquerque.  
Funding by Urban Enhancement Trust Fund and New Mexico Arts.  
Cosponsored by Ta Lin International Market.

**TALIN MARKET**  
URBAN ENHANCEMENT TRUST FUND

Urban Enhancement Trust Fund  
awards programs

**nma**  
new-mexico arts

Sponsorships and Donations Visit:  
[www.aaanm.us](http://www.aaanm.us) or call 505.332.9249

1. 한국학교 후원 문화의 밤 행사가 5월 12일 오후 5시 30분에 East Gate Church에서 있습니다. 외국생활을 하면서도 한국의 열과 문화, 언어를 잊지 않고 계승하고자 하는 많은 이들의 열정과 수고가 담겨진 이 시간을 기억해 두셨다가 꼭 참석해 주십시오. 태권도, 부채춤, 가곡, 힙합댄스, 탈춤, 동요, 미술전시, 사물놀이, 악기연주 등 다양한 공연을 준비하였습니다. 판매되는 티켓(\$10, 각 한국마켓)과 수익금은 한글학교의 발전을 위해 쓰여집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기타 문의 사항: 505-515-4211 이선아교장)

2. 지난 3월 31일 12시에서 오후 4시까지 라스크루시스 New Mexico State University Corbett Center에서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한인회 이사이신 김명주 교수와 Michael-Sean Hong O'Donnell, 김영심씨께서 한국전통 물품을 전시하고 대보름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했습니다.

3. 어버이회 모임이 정기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1일 수요 모임은 김영신 이사장님댁에서 모였습니다.



**한인 천주교 성령 안의 새 삶 세미나**  
날짜 : 6월 31 일(토) – 7월 3일(화)  
장소 : 마돈나 피정센터

**한인 천주교 "Garage Sale"**  
날짜: 4월 28일 (토) 6:00 AM – 1:00 PM  
장소: 9209 Bluewood LN NE  
Albuquerque, 87122  
오징어 채 무침 판매 합니다  
(전화 주문 가능)  
장 루피나 (505) 503-9846



4.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3.28~4.2) 재외동포 투표에서 5만 6천 명이 투표에 참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공관별 통계)

국가명	공·관·명	선거인수	투표자 수						투표율	비고
			누계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한국	한국	123,571	56,456	7,160	6,674	8,320	11,267	11,976	11,059	45.6%
미국(대)	미국(대)	2,014	885	81	73	140	270	211	110	43.9%
뉴욕(총)	뉴욕(총)	4,606	1,745	193	208	290	374	362	318	37.8%
로스앤젤레스(총)	로스앤젤레스(총)	4,475	2,373	319	324	385	495	428	422	53.0%
보스턴(총)	보스턴(총)	1,986	867	69	78	112	244	262	102	43.6%
샌프란시스코(총)	샌프란시스코(총)	2,010	1,033	75	93	129	364	238	134	51.3%
시애틀(총)	시애틀(총)	2,068	678	89	62	78	174	169	106	32.7%
시카고(총)	시카고(총)	2,030	937	61	66	91	404	219	96	46.1%
애틀랜타(총)	애틀랜타(총)	1,583	774	74	71	77	275	162	115	48.8%
호놀룰루(총)	호놀룰루(총)	813	410	92	51	55	75	71	66	50.4%
Honolulu(총)	Honolulu(총)	1,125	440	42	24	52	147	116	59	39.1%
랭커리지(총)	랭커리지(총)	78	55	0	0	14	11	14	16	70.5%

## 동경 노숙자 선교

### 박인배 목사

윤목사님, 오랜만에 문안을 드립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못드렸습니다. 안식년에서 돌아온후 계속적으로 3/11 토호쿠 재해지원 그리고 노숙자 사역으로 시간이 너무도 빨리 지나갔네요. 일본은 지난해의 재해로 아직도 사실상 곤경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도 수많은 사람들이 가설주택에서 정부의 보조로 생활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가 지나면 그래도 형편이 많이 나아지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경의 노숙자 사역은 이전이나 변함없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바뀐점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뺑을 나눠주던 사역에서 소규모 그룹사역으로 바꾸어 선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숙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상으로 일대일 전도 내지는 제자훈련에 그 촛점을 두고 있으며 반면 동경 4개 주공원과 대형 역 주변으로 선교지역을 확대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각 SMALL GROUP을 SIDEWALK CHURCH로 명명해 그룹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SIDEWALK CHURCH 확장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사실 그동안 한번도 NEWSLETTER도 보내질 못했습니다. 토호쿠재해지원 과 노숙자사역 사진 몇장을 첨부하며 알버커키 교역자 한분 한분께 이글을 대신해 안부를 전합니다.



동경에서,

박인배드림(parkmail@gmail.com)

PS: 마지막 사진 Ms.도도씨는 40살된 독신여성으로  
쓰나미로 파손된 집을 수리해주며 제가 전도해 예수님  
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진배경의 자신의 집  
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에세이-

## 알러지 시즌

이 정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해마다 삼 월이면 매혹의 땅 뉴멕시코 인구의 약 반이 눈에 보일락말락 미세한 가루 때문에 알게 모르게 곤욕을 치른다. 여러 가지 나무가 같은 시기에 꽃을 피우지만 말썽을 부리는 주범은 노간주나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측백나무 과의 상록교목인 노간주나무가 초순에 녹갈색의 꽃을 피우기 시작하면 일주일 후쯤 노란색 꽃가루가 마치 들판처럼 뿐어져 나오고, 날마다 불어대는 봄바람이 꽃가루를 산지사방으로 흩어놓는다. 그 가루는 벨크로 같은 작은 분자로, 공기 중에 떠다니기도 하고 나뭇잎이나 옷가지에 달라붙어 기도 한다.

운이 좋은 반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 그 꽃가루가 지난 해 나를 아주 심하게 괴롭혔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증상을 속속들이 알지 못하지만, 처음에는 재채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어서 콧물이 흐르며 몸이 으슬으슬하기까지 해서 감기를 의심하게 만든다. 시간이 지날수록 재채기를 연발하면서 피까지 섞인 콧물이 줄줄 흐르고, 밤에는 숨이 막혀 잠들 수가 없어지며, 뜯눈으로 밤을 새운 아침이면 눈은 가렵고 얼굴은 부어있다. 말년에 좀 편하게 살아보려고 여길 왔는데 이 무슨 날벼락인가.

내 몸이 알러지를 일으킨 것이다. 어떤 종류의 물질을 섭취하거나 그것에 접촉되면 몸 안에 항체가 만들어진다. 같은 물질을 다시 섭취하거나 접촉하면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며, 그것을 면역반응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면역반응은 생체에 이롭게 진행되어 외부로부터의 침해를 방어해주는 것인데, 반응에서 생긴 물질이 오히려 몸에 병적 증상을 유발하는 수도 있다. 대개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질병을 알러지라고 부르며, 과민반응 또는 이상과민증이라고도 한다. 꽃가루 음식 동물 따위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과민하여 두드러기 식증 등 비염 천식 화분병 등이 나타나고, 때로는 치료의 목적으로 주사하거나 섭취한 약물에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대표적이다. 보통 사람에 비하여 이러한 증상을

나타내기 십상인 사람은 과민성체질을 가진 사람이다. 어렸을 적 몇 번인가 두드러기가 났던 것으로 보면 나도 과민성체질인가. 하지만 20여 년 전 교환교수로 오레곤 주립대학교에 체류할 때, 밀밭 한가운데에 위치한 코벨리스에서 아내는 밀꽃가루 알러지로 고생했지만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리고 병원에서 알러지에 관하여 물으면 반드시 페니실린에 과민하다고 일러주어야 하는 아내는 다행히 여기 앨버커키에서는 멀쩡하다. 설마 꽃가루가 나를 괴롭히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나여서 처음 걸려들었을 때 감기인 줄만 알고 늑장을 부리다가 대가를 톡톡하게 치렀다.

알러지에 먹는 약 '저텍'은 슈퍼마켓 약품코너에서 해열제나 소화제처럼 손쉽게 살 수 있다. 수백 알이 든 약병이 진열되어 있기도 한데, 그것은 알러지 시즌이 시작되었다 하면 한 달도 넘게 가는데다가 한 집에서 몇 사람이 동시에 먹어야 하는 경우를 위해서일 터. 이 약은 항히스타민제로 항원-항체반응에서 만들어져 증상을 유발하는 주범 히스타민의 작용을 억제시키는 작용을 가지고 있다. 먹기도 쉬워서 작은 알 하나를 하루에 한 개씩만 먹어두면 된다. 먹은 후 졸음이 오는 경우도 있어서 운전에 주의하라는 경고도 있으나 심하지는 않다. 이 약의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싶으면 바로 복용하기 시작하여 시즌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

알러지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알러지나'도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다. 조그마한 병에 든 물약인데, 병뚜껑에 붙어있는 피펫으로 하루에 세 번 혀 밀에다가 여남은 방울씩 떨어트리라고 지시되어 있다. 자생하는 목초나무 잡초 등이 비슷한 네 개의 주 애리조나 콜로라도 유타 뉴멕시코의 120가지 식물에서 추출한 알러지원으로 만든 동종요법 약이다. 동종요법은 약 200년 전 독일의 의사 새뮤얼 하네만이 창시한 치료법으로, 질병을 유발하는 물질을 아주 소량씩 몸 안으로 넣어주어 그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알러지나는 면역력을 향상시켜 알러지의 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약품이다.

이른 봄 알러지로 곤욕을 치른 내 몸이 늦가을에 또 한 번 시달렸다. 이미 경험한지라 재빨리 대처하여 심하게 당하지는 않았으나, 이렇게 번번이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싶었다. 여기저기 찾아보니 앨버커키 주변에 서식하는 식물 가운데 꽃가루를 많이 내뿜는 나무는 뽕나무 노간주나무 느릅나무 물푸레나무 코튼우드 등이며, 노간주나무는 가을에도 꽃을 피우고, 사방에 널려 가을이면 샛노란 꽃으로 불모지를 한결 아름답게 만드는 세이지 브러시도 많은 꽃가루를 내뿜는다는 것이다. 노간주나무와 코튼우드는 내 집 뒷마당에도 있으며, 집밖으로 나가 몇 발작만 걸으면 세이지 브러시를 심어놓은 정원도 있다.

꽃가루 알러지는 콧속에서 일어난다. 콧속은 부비강에 연결되어 있어서 증상이 심하면 숨을 쉬기가 어려워진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꽃가루에 접촉되지 않으려면 숨을 쉬지 않아야 하는데, 오래 멈출 수도 없고 덜 쉴

수도 없는 것이 숨이라 다른 방도를 찾는 수밖에. 큰 병을 앓아본 적은 없으나 나는 스스로를 허약체질로 치부한다. 항상 스트레스를 받는 느낌을 멀칠 수가 없었고, 그래서였던가 위장병을 끼고 살아왔다. 꽃가루 따위에 심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은 허약체질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하나의 과정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체질을 개선하여 저항력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처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절제된 삶과 운동 그리고 면역력을 향상시켜주는 약의 복용 등으로 내 체질을 바꿔보기로 했다. 공기가 맑고 항상 건조하며 연중 햇볕이 쟁쟁 내려 죄는 날이 많아 예부터 천혜의 요양소로 알려진 앨버커키에서 자연과 더 많이 접하며 사는 혜택에 비하면 앨러지쯤 앓는다고 무슨 대수냐는 마음으로. <2012. 2.>

## 메시야에 대한 예언과 성취

김준호 장로



뒷 마당의 살구꽃



쌍등이 벚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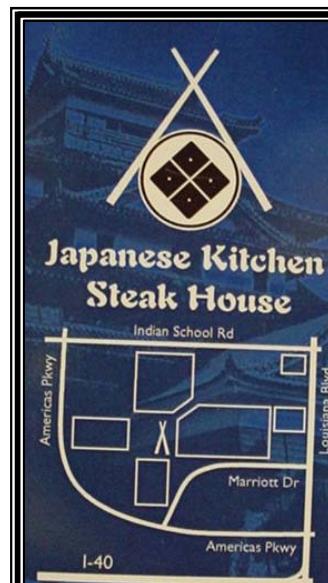
지난주에 종려주일을 지내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지내는 절기가 되었다. 또한 부활주일 새벽에는 교역자협회 주관으로 연합 새벽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 앨버커키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우리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쁨을 나누려고 한다. 하나님도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는다.

벌써 크로코스와 개나리꽃이 피어서 봄이 왔음을

자랑하고 있다. 이때가 되면 으레 우리 뒷마당에 살구꽃들도 만발하여 마치 누구한테 뒤지지 않으려는 듯 자기의 아름다움을 과시하기도 한다. 늘 살구꽃이 필 때면 금년에는 언제 꽃샘추위가 와서 그 나무가 보였던 그 아름다움과 또 열매를 무참하게 짓눌러 시들거나 하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 우리집 살구나무는 이름도 회안해서 Sweet Heart라고 한다. 이 나무는 어느 nursery에서 특허 받은 것인데 보통 살구 맛과 다르고 그 씨가 almond와 비슷해서 먹기도 한다. 누가 말했는지는 몰라도 평 먹고 알 먹고가 아니고 살구 먹고 씨 먹고 한다. 우리교회 어떤 성도는 그 살구맛에 반해서(?) 그 나무를 사서 키우는 분도 있다. 일석이조이기 때문에 Sweet heart란 별명이 붙은 듯 하다. 그런데 Bing cherry 꽃도 하도 예뻐서 자랑삼아(?) add했다. 이 나무를 살 때 그들의 말은 cherry는 self pollination이 안 된다고 해서 쌍으로 심었다.

복숭아꽃 살구꽃(?), 봄이 되면 또 생각나는 노래가 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진달래-----” 이 노래는 우리 감리교회 이경화 장로님 아버지이신 이원수 선생님이 작사하신 유명한 고향의 봄 가사이다. 우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이원수선생님과 이장로님과 부자지간이라는 사실은 대학 다닐 때 알지 못했었다. 우리들은 아주 막연한 사이였지만 등잔 밑이 어두웠나보다. 도대체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으니 말이다. 작년에 그분의 100 주년 기념행사가 있어서 한국 방문을 하고 돌아왔다. 그분은 아동문학가로 어린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했고 많은 동시와 소년소설과 수필들을 남겨놓으신 잊을 수 없는 분이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구약성경에 보면 여러 선지자들이 메시야가 오실 것을 예언했고 그가 와서 무슨 사역을 하실 것인지 여기저기에 말해주고 있다. 한편 신약 성경, 특히 4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중요한 행적들이 잘 기록되어 있다. 나는 오래 전에 찾았던 것을 다시 요약해 보고자 한다.



## Japanese Kitchen

### 제페니즈 키친

일본인이 경영하는 일식 정통집

일본정식(5코스:30불, 6코스:40불,

8코스:50불)

모듬정식(벤또), 해물우동, 튀김우동,

닭고기정식, 고등어정식, 풍지정식, 연어정식,

그외 일본 정통음식

(대만)야끼전문, 고기 종류와 해물 외 다수

Phone(505) 884-8937  
6521 Americas Parkway, NE, ABQ



This journal published for Korean residents living in New Mexico. Our goal is to help

distribute this journal at the major cities in New Mexico to find out Korean residents and make a network for helping each other. If you have question, contact Mrs. Choy by phone (505-553-1009) or email (kuchachoy@q.com).

1 번: 미가서 5: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부라다야. 너는 유대 종족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을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라고 했고, 마태복음 2:1-6절과 누가복음 2:1-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고 있다. 예수님의 탄생하신 곳은 에부라다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을 말한다.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약 5 mile 정도 떨어진 곳이다. 그런데 나사렛에서 서북쪽 약 7 mile 지점에 또 다른 베들레헴이 있으므로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곳은 에부라다에 있는 베들레헴이라고 분명하게 말한 것이다. 미가는 주전 742년에 선지자의 소명을 받았으니까 이 예언은 깜작 놀랄 사실이 아닐 수 없다.

2 번: 이사야 7:14 절에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했는데 마태 1:18-25절, 누가 1:26-38절을 보면,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탄생했음을 알수 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라고 한다.

3 번: 신명기 18:25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하였는데 요한 7:40절에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라고 예수님 이 선지자임을 고백하였다.

4 번: 스가랴 9:9-10절과 요한복음 12:12-16절에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온다. 불후의 명곡 Handel의 메시야곡 중 제16번은 스가랴의 예언을 그대로 사용하여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 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찌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 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라고 마치 천사들이 외치는 듯한 인상을 준다.

5 번: 이사야 53장을 읽으면 마치 예수님의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실제로 목격하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된다. 어떻게 이사야는 우리 주님이 당하셨던 고통을 그렇게 생생하게 기록했을까 놀라게 한다. 그것도 예수님의 오시기전 700년 전에 말이다. 또 인용하지만 Handel의 메시야곡 중에 제 21번, 22번, 23번, 24번, 그리고 29번은 이사야 53장에 있는 고통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백성으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정에서 침묵을 지키며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등등----- . 정말 이사야 53 장은 성경 전체 중에서 최고로 손꼽을 수 있는 말씀 중의 말씀이라고 생각 된다. 문체를 보면 너무 또렷하게 보았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된 것도 특징이다. 나는 아사야 53장을 읽으면 어떤 때는 내 마음이 둥글해지고 눈물이 나올 때도 있다. 한편 마태복음 27장에 빌라도 총독과 백성들 간의 대화와 그를 조롱하며 침뱉고 아우성치는

장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라고 외치던 장면과는 너무 달라서 사람의 간사한 면도 있음을 보여준다.

6 번: 시편 41편 9절에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뼙을 먹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3:18절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14-16절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간 따르던 제자로써 자기 선생님을 배신하고 은 30량에 팔아 버리는 배은망덕한 짓을 했던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다.

7 번: 이사야 53: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 “마태복음 27:12-14절과 누가복음 23:8-10절에도 입을 열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고 있다.

8 번: 시편 22:14, 16-17절에 말로 다할 수 없는 메시야의 십자가의 고통을 말해주고 있는데 마태 27:31, 마가 15:20절에 그 처절한 모습이 있는 것이다.

9 번: 이사야 53:12절에는 범죄자들과 함께 고통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마태 27:38절과 마가 15:17절에 강도들과 함께 처형 되었다고 했다.

10 번: 시편 22:18절에 “내 걸웃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라고 했는데 마태 27:35절 요한복음 19:23-24절에 정말 그같이 했다고 있다.

11 번: 이사야 53:9절에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라고 예언했는데 요한복음 19:38-42절에 은밀하게 밀었던 부자였던 아리마데 요셉이 니고데모와 함께 주님의 시체를 자기 묘실에 안장했다고 나와 있다.

12 번: 시편 16:9-11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시편은 다윗 왕이 자기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거룩한 자를 음부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25-28절에 또 바울은 13:35-37절에서 이 시편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다고 인용하고 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뜻이 있고 영생을 약속해 주는 보배로운 말씀이기도 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첫 부활주일 새벽, 마가 16:9-11절, 요한 20:11-18절), 다른 여자들(마태 28:9-10절),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첫 부활 주일 오후, 마가 16:12-13절, 누가 24:13-35절),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첫 부활 주일 저녁 누가 24:36-43절, 요한 20:19-25절),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일주일 후, 요한 20:26-31절),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사역하신 일들은 고기를 잡던 일곱 제자들에게 갈릴리 해변에서 만나시고 조반을 드신 후에 베드

로에게 그의 충심을 다짐받기도 하셨고(요한 21:1-25절) 또 500 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고린도전서 15:6절에 있다. 예수님의 승천 기사는 마가 16:19절, 누가 24:50-53절 그리고 사도행전 1:3-9절에 나와 있다.

13 번: 이사야 53:10-11에 메시야는 믿는 이들을 위해서 속건제물이 되고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3:16절과 사도행전 16:31에서 이 사실이 확인된다.

14 번: 시편 110: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궁금하다. 이 시편자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한다. 그런데 마가복음 16:19절에 있듯이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지금까지 구약에 14 가지 메시야에 대한 예언과 신약에 그 성취된 구절들을 비교해 보았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은 주님의 재림이다. 다급한 요즘 세상에 언제 주님이 오실 것인가, 또는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가족도 꼭 함께 가고 싶은데 원하는 대로 될 것인가 등등 궁금한 것이 많다. 이에 대한 정확한 해답은 내가 아니라 목사님들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 듯하다. 나는 내 나름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의 재림, 말을 바꾸면 종말론에 대해서는 몇 번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한다.

마지막 결론은 우리가 늘 보는 성경은 다른 서적들과는 비교가 안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늘 읽고 묵상하며 살아야 한다.

## 귀납적 방법에 의한 골로새서 1장2절 주석

### 김기천 목사

**구절 1:2** 골로새에 있는 거룩하고 신실한 그리스도 안에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너희에게 (있을지  
어다)

#### ▣ 구절 관찰 해석

**1:2 “골로새”는 어떤 도시인가(용어-배경-장소):** 골로새는 에베소에서 길리기아(Cilicia)와 수리아(Syria)에 이르는 통상로에 있었던 도시로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150km 떨어져 있었으며 라이커스(Lycus) 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던 도시였다. 이 지역을 흐르던 라이커스 강물은 라이커스 골짜기를 따라 흐르다가 갑자기 땅이 갈라진 틈으로 쏟아져 사라져 버리고 땅속에서 약 930미터 정도 흐르다가 다시 땅위에 드러나서

메안더(Maeander) 쪽으로 흘러갔다. 도시 골로새는 라이커스 강물이 사라져 버리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다<sup>1)</sup>. 소아시아 지역 대부분이 화산 지대로서 지진 활동이 있었지만 골로새에는 지진이 특히 심했다. 결국 주후 66년경 지진으로 인해 골로새는 라오디게아(Laodicea)와 히에라폴리(Hierapolis)와 함께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지금은 골로새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내기 힘들다. 한때에는 헤로도토스나 크세노폰(Xenophon)이 소아시아에 있는 골로새의 번영과 위대함을 노래할 정도로 큰 도시였지만 나중에 라오디게아를 통과하는 더 좋은 통상로가 생김으로 바울 당시 골로새는 많이 기울어져 부르기아(Phrygia) 지방에 속하는 한 작은 도시에 불과하였다. 기원 후 62년경에 골로새에는 유대인만 약 11,000 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아마도 주전 200년 전 안티오크스(Antiochus) 3세와 4세의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많은 유대인들이 여기서 살게 된 것 같다. 골로새는 땅이 매우 비옥했기 때문에 목양업이 잘되어 면제풀 공업이 발달하였고 화산 영향으로 풍부한 화학 성분이 들어 있는 라이커스 강물은 옷감을 염색하는 데에 적합했기 때문에 염색 옷감 무역이 매우 활발하였다. 이 당시 골로새는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와 함께 최고의 염색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도시로 이름이 나 있었다. 당시 통상로에 위치했던 골로새는 여러 사상과 종교들의 교차로였다. 이런 지역적 특징으로 인해 골로새 교회가 이단 종교들의 위협을 받았던 것이다.

**1:2 바울이 골로새를 방문했었는가(용어-관계-설명):** 골로새를 통과하던 통상로가 라오디게아로 끊긴 후부터 골로새의 번영은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여행이나 무역하는 사람들이 골로새보다는 라오디게아를 통하는 도로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골로새 주변 도시인 라오디게아나 히에라폴리가 큰 도시로 성장했다. 바울 또한 세 번째 선교 여행을 할 때 에베소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라오디게아를 통과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골로새를 방문한 적은 없다. 결국 골로새는 바울이 방문한 적이 없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이다.

**1:2 “거룩하고 신실한”은 올바른 번역인가(구절-문법-설명):** 여기서 “거룩한”(άγιοις: 하기오이스)이란 형용사가 정관사 τοῖς(토이스)와 결합하면 형용사의 명사적 용법이 되어 “성도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sup>2)</sup> 그런데 정관사 τοῖς(토이스)는 여객 명사 “형제들”(ἀδελφοῖς: 아델포이스)에 관계된 것으로 보면 그 가운데 있는 형용사 “거룩한”(άγιοις: 하기오이스)과 “신실한”(πιστοῖς: 피스토이스)은 “형제들”을 수식하는 것이 된다. 시리아 성경(Syriac)과 라틴어 성경(Vulgate)이 후자의 입장은 취하고 있다.<sup>3)</sup> 이런 의미에서 본 구절 “거룩하고 신실한”이란 번역도 잘못된 것이 아니다.

**1:2 본 절에 “거룩한”과 “형제들”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용어-관계-설명):** “거룩한”은 골로새 형제들의 신앙적 성품을 나타내고 있다. 본래 “거룩한”에 해당하는 헬라어 ἄγιοι(하기오이)는 신성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나 물건들이 갖고 있는 특성을 나타내는 종교적인 용어로 “신에게 바쳐진, 순수

1) Herodotus, *History*, 7.30

2) 영어 성경 King James Version이나 Revised Standard Version이 이런 번역을 따른다.

3) 영어 성경 New International Version은 이런 입장은 취하고 있다.

한, 깨끗한, 완전한”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런 의미를 적용한다면 “거룩한 형제들”이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당신의 자녀를 삼으신 크리스천들을 가리킨다. 또한 이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온전하게 된 사람들이다.

**1:2 본 절에 “신실한”과 “형제들”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용어-관계-설명):** “신실한”역시 골로새 형제들의 신앙적 성품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신실한”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 πιστοῖς(피스토이스)는 형용사로 “믿음직한, 충성스런”이란 뜻을 지닌다. 이 용어는 주로 사명을 받은 사람이나 일을 맡은 종들이 정성을 다하여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 쓰는 말이다. 그래서 본 절에 “신실한 형제들”이란 표현은 곧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골로새 교인들 또한 주님 보시기에 믿음직한 골로새 교인들을 가리킨다. 바울은 뒤에 1:7절에서 골로새 교회 내에 대표적인 신실한 일꾼으로 에바브라를 거명하였다.

**1:2 본 절에서 “그리스도 안에”란 구절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구절-의미-설명):** “안에”란 전치사 ἐν(엔)에 따라 세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로 장소의 의미이고 둘째로 수단의 의미이고 셋째는 연합의 의미이다. 장소의 의미일 경우 “그리스도”는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경계 역할을 한다. 본 구절은 골로새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과 밖에 있는 사람들로 구분하며 특히 골로새서를 읽어야 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로 규정한다. 다시 말하면 골로새서는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한 편지라기보다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한 편지인 것이다. 둘째로 전치사 ἐν(엔)을 수단의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수단의 의미가 되면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란 의미가 된다. 그러면 본 구절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되고 신실하게 된 형제들”이란 의미가 된다. 셋째로 연합의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본 구절이 연합의 의미가 되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연합된”이란 의미가 된다. 이 경우는 “거룩함과 신실히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연합된 형제들”이란 의미가 된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란 구절을 연합의 의미로 즐겨 사용했기 때문에 본 구절도 연합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바울이나 디모데나 골로새 교인들 모두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한 몸이다.

**1:2 왜 바울은 골로새서 수신자를 “형제들”이라고 불렀는가(용어-의미-설명):** 바울은 앞 절에서 디모데를 “형제”라고 불렀고 또한 본 절에서 골로새 교인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서 서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이다. 바울이 이 용어를 사용한 다른 이유를 찾아본다면 바울과 골로새 교회 사이에 긴장 관계에서 볼 수 있다. 현재 골로새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이단 교사들에 의해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이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찾아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골로새 교인들과 친숙한 사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상황에 골로새 교회를 바로 잡기 위해 본 서신을 쓴 것이다. 만일 바울이 여기서 골로새 교인들을 의도적으로 “형제들”로 불렀다면 그 이유는 골로새 교인들과 수직적인 교권 관계를 피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맺어진 형제 관계임을 부각시키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설키기 때문에 서로 형제자매들이다. 이런 형제 관계 속에서 바울의 사도적 권위는 밑형 즉 장자의 권위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바울은 연약한 동생들을 돌보는 밑형과 같이 장자의 권위로 훈들리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을 본 서신을 통해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1:2 “골로새 안에 있는 거룩하고 신실한 그리스도 안에 형제들에게”는 본 서신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가(구절-형식-설명):** 본 구절까지가 골로새서의 첫 문장이 끝나는 셈이다. “형제들에게”란 용어 뒤에는 “편지하다”란 동사가 생략되어 있다. 그래서 본 구절은 이 편지를 받아 읽을 수신자를 규정하는 역할을 한다. 편지를 받아 읽게 될 사람들은 골로새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순결한 형제자매들이며 또한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는 믿음직한 형제자매들이다.

**1:2 본 절에 “형제들에게”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구절-관계-설명):**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란 구절은 바울이 앞에서 골로새 교인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른 근거가 된다. 여기서 “우리”란 바울이나 디모데뿐 아니라 골로새 교인들도 포함하는 말이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 당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은 서로 형제요 자매이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도 형제라고 부르고 골로새 교인들도 형제들이라고 부른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 거듭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닮은 모습이 들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천지창조 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신 이유는 자신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이었다.

**1:2 “은혜와 평화”란 구절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구절-형식-설명):** 본 구절은 골로새서에서 인사말에 해당한다. 바울 당시 헬라 사람들의 인사법과 유대인들 인사법이 달랐다. 헬라 사람들은 “은혜가 있기를”이란 인사말로 χάρη(카이레) 또는 χαίρειν(카이레인)이라고 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평화가 있기를”이란 인사말로 μακάριον(샬롬)이란 표현을 썼다(참고, 단 4:1). 이런 당시의 관습을 적용한다면 본 구절에 “은혜”는 당시 골로새 교회 내에 이방인 크리스천을 염두에 둔 표현이고 “평화”는 유대인 크리스천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1:2 왜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화”라고 표현했는가(구절-의미-이유):** “은혜”와 “평화”란 용어는 당시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던 용어였다. 바울은 이런 일상적인 용어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전치사구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란 형용사구를 덧붙였다. 그러므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축원하는 “은혜와 평화”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요 평화인 것이다. 이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인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이며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이며 용서받은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란 인간의 죄로 인해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다시 회복되어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상태를 가리킨다. 본 구절은 골로새 교인들의 축복을 기원하는 바울의 인사말이다.

## 김기천 목사의 영성 독서

### “수도원 전통”

5세기, 로마가 망해가고 외부 침략이 빈번했던 시기에 “사막의 교부”라고 불리던 존 카시안(John Cassian, 주후 360-435)은 유럽 땅에 수도원을 설립하고 수도사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수도사들에게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평생 의무라고 가르쳤습니다. 성경의 참 의미를 깨달으려면 수도사들은 금식과 철야를 하며, 더욱 깊은 영성을 계발해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고쳐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카시안은 성경 안에는 놀라운 영적 실재들이 인간의 언어에 의해 베일로 가려져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영적 실재를 경험하는 깊은 영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평생토록 연구해야 한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영성독서”(Lectio Divina)의 본질을 지적한 것이지요.

이런 카시안의 수도원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은 성 베네딕트(St. Benedict, 주후 480-543)였습니다. 그래서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영성을 위한 성경연구는 수도원 규율에 중심이었습니다. 수도원 내에서는 하루 일과 가운데 여러 번 시간을 정해놓고 의무적으로 기도를 드리는 규율(Officium Divinum)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개신교인들에게는 읽어버린 전통이지만 영성 훈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요. 수도사들은 기도를 마치고 다음 기도가 시작되기 전 중간에는 시편에 곡을 불여서 노래로 부르곤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말씀에 곡을 불인 찬송가를 불렀다고 해야겠지요. 또한 수도원에서 식사시간이 되면 식사하는 동안 한 사람이 성경말씀을 큰 소리로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성경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 수도사들이 읽었던 성경이라야 오늘날 성경의 일부분만 수록된 사본들이었습니다. 아직 인쇄 기술이 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책을 만들려면 원본을 보고 손으로 베껴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성경책을 한글로는 “사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manuscript”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손”이란 라틴어 manus(마누스)와 “기록물” 또는 “책”이란 scriptum(스크립툼)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성경 원본들을 모두 구하기도 힘들지만 66권 전체를 손으로 베껴 쓴다는 것 역시 쉽지 않았지요. 그래서 많은 수도사들은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과 구약이 합본된 성경을 가질 수도 없었고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수도사들이 사본들을 통해서만 성경말씀을 접했던 것은 아닙니다. 교회 절기에 따라서 연관된 성경구절을 뽑아서 만든 성구집(Lectionary)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의 지도자들인 교부들이 쓴 글 안에도 인용된 성경구절들이 있었습니다.

수도원 규율에 따라 베네딕트 수도사들은 성경연구를 계울리 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인 성경읽기, 성경묵상 등을 통해서 수도사들의 마음속에 쌓인 성경의

가르침이나 형상들은 수도사들의 영성을 형성하는 기반이 된 것입니다. 비록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전체는 없었지만 나름대로 있는 사본들, 성구집, 교부의 글들을 매일 하루에 두 시간 이상 읽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영성독서”(Lectio Divina)는 성경말씀만이 아니라 교부들의 글들과 같은 경건서적들도 포함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팔만 뼛으면 읽을 수 있는데 과연 우리의 신앙 선배들처럼 소중하게, 진지하게, 영성을 위해서 성경말씀을 대하고 있는지 자문해봅니다.

### 장로교와 감리교?

김기천 목사

오늘 아침 식사를 같이 하시던 집사님 뜬금없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차이를 물었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꽤나 궁금하셨던 모양입니다. 모르는 것보다 알고 있는 것이 훨씬 낫겠지요.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차이를 묻는 것은 ‘장로교와 감리교’의 차이를 묻는 것과 같습니다. 장로교의 기초는 ‘예정론’을 강조하던 칼빈의 가르침에 기초를 두었지요. 반면에 감리교나 성결교 등의 교리는 알미니안 주의의 중심인 ‘자유의지론’에 기초를 두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말입니다. 결국 칼빈주의나 알미니안주의냐란 질문은 예정론이나 자유의지론이냐에 기초하지요. 예정론 또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강조한다면 또한 자유의지론은 인간의 결단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 인간이 구원받고 저주받는 것조차 다 아시고 계신 것이지요. 그것도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을 사람 지옥 갈 사람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지요. 결국 구원 사역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반면에 자유의지론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더불어 인간의

#### 광야의 소리는

매달 5일에 원고를 마감합니다.

원고나 뉴멕시코주 소식에 관한 기사를 보내시거나

광고를 요청하실 분은 마감 전까지

권구자 부장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도네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흑백: 1/8 페이지-\$20, 1/4 페이지-\$40

칼라: 1/8 페이지-\$35, 1/4 페이지-\$70, 1/2 페이지-\$200

담당Contact: 권구자 Kucha Choy 505-553-1009,  
voiceofnm@gmail.com

편집위원: 이철수, 김채원, Joshua shin

#### § Voice in the Wilderness §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결단 즉 의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로봇과 같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 나름대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결단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의 가르침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인간의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미리 정해 놓으신 것 이지요. 이것을 선행은총이라고 합니다. "선행은총(Prevenient Grace)"이라는 사상은 사실 알미니우스(Arminius)가 가르친 것이지요. 그런데 미리 정해 놓은 이 길, 하나님의 은총을 인간이 의지적인 결단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아직 인간이 덜된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인정(칭의, Justification)해주시는 것이고요. 이때 하나님의 칭의의 은총(Grace of Justification)이 함께 도우시지요. 이것은 단 일회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후로도 계속해서 덜된 인격을 다듬는 의지적인 결단이 요구됩니다. 이 단계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한 인간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과정으로 성화(聖化, Sanctification)라고 하지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총(성화의 은총)이 함께 하셔서 한 인간이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둡지요. 성화의 마지막 마지막 단계가 영화(榮化, Glorification)이지요. 요한 웨슬리의 가르침을 보면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중심이긴 하지만 인간의 의지적인 순종이 어우러져 이루어지는 구원론이지요. 뭐 좀 복잡하게 말하면 '신인 협동 구원론(Synergism)'이라고 하지요.

예정론과 자유의지론. 이 두 주장의 대립이 최초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어거스틴 시대라고 봅니다.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논쟁으로 교회 안에 이 문제가 터져 나옵니다. 예정론을 주장했던 어거스틴은 카르타고 회의(주후 418)를 소집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자유의지론을 주장했던 펠라기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난 후에 예정론을 주장했던 칼빈의 입장을 옹호하는 고마루스(Gomarus)와 자유의지론을 주장했던 알미니우스(Arminius)의 논쟁이 터져 나옵니다. 고마루스는 알미니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지요.

문제는 성경을 뒤져보면 바울의 글들 안에는 예정론을 지지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요한복음과 같은 요한의 글들을 보면 인간의 결단 즉 자유의지를 지지하는 말씀들이 나오지요. "예정론과 자유의지론, 둘 중에 어느 쪽이 맞냐 틀리냐?"라는 질문을 성경의 한쪽만 받아들이고 다른 쪽은 버리겠다는 말과 같지요. 성경에는 모두 들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둘 다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집

사님과 함께 새벽예배를 마치고 아침식사를 하게 된 것을 두 가지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론 입장에서 보면 우리끼리 우리의 의지만으로 식사자리가 마련된 것이지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지요. 별로 은혜스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 자리를 계획하셔서 지금 집사님과 함께 자리를 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아침 식사하는 이 자리와 지금 한 순간 한 순간이 감사할 때임이지요. 10년 전에는 예상치도 못 한 일이었지요. 바울은 서신을 기록할 때마다 자신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미리 택정하셨다고 자신있게 고백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신앙은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지금 이 순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여전히 개입하고 계신다는 믿음과 고백 그것이 신앙생활이지요.

그렇다고 하나님에 다 알아서 하시니까 나는 아무일도 안하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또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당신은 심지도 않는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마 25:24)"라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손 하나 까딱 안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 주인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며 꾸짖으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명령을 받은 종처럼 행동해야지요. 자발적인 의지로 결단해서 순종하는 행동이 있어야,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는 예정론적인 고백과 의지적인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교리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삶을 가르치려는 책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교리라는 칼을 만들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교회 역사를 보면 목을 잘라 죽이기까지 했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지 그것 가지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하며 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모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르침이라면 둘 다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맞고 다른 것을 틀리다고 하면 성경의 큰 부분을 잘라내고 가르치는 이단이 되는 것이겠지요. 성경의 모든 내용을 논리적으로 맞출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내 땀에 안 든다고 무식하게 잘라내는 횡포는 일삼지 말아야 합니다.

<b>방 세놓음 Room Rent</b> Room Rent : \$350/month + Util 1/3 Available date: 5/20/12 phone : 505-352 -5775
---

# 광야에 흰 4월의 야생화

사진과 글: 이경화

알버커키의 뒷 마당이라고도 할수 있는 트램웨이 동쪽 엘레나 가예고 (Elena Gallegos)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와 하이 데저트(High Desert)지역의 베어 캐니언 트레일(Bear Canyon Trail)을 걸으며 찍은 4월의 들꽃을 여기에 몇개 소개하려고 한다.

- 달맞이꽃  
(Stemless Evening Primrose)

달맞이꽃속에 속하는 꽃의 종류는 125가지에 달하는 많은 종류가 있다. 알버커키 지역에서 보는 달맞이꽃은 흰색갈에 키가 작은 Stemless Evening Primrose(학명: *Oenothera caespitosa*)인데 하이데저트에 있는 베어 캐니언 트레일 주차장 주변에 가장 많이 모여 펴있다. 일반적으로 꽂은 줄기가 길게 뻗고 그 위에 피는데 반해 이 꽂은 줄기가 없이 낮게 땅에 붙은듯 피어나서 Stemless란 형용사를 앞에 부쳤나 보다. 저녁에 피는 꽃이라고 해서 Evening의 형용사를 부쳤지만 한국어로는 저녁이란 표현대신 달맞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 많은 미국사람들은 두 글자 형용사를 생략하고 그냥 간단하게 프림로스(Primrose)라고도 부른다.



- 트레일링 프리베인  
(Trailing Fleabane)

이 꽂은 한국에서 볼수 있는 개망초꽃과 같은 속에 들어가는 꽃이다. '프리베인'이란 영어이름은 이 꽂이 벼룩(Flea)을 쫓아낸다고 믿었던 전설때문에 지어진 이

름인데 한국 이름 개망초는 이름의 유래가 더 재미 있다. 원산지가 북미 대륙인 이 꽂이 한국에 들어 온것은 1900년 초기라고 한다. 이때 한국에 처음 철도를 놓느라고 철도 침목을 미국에서 수입해서 썼는데 침목에 씨앗이 묻어 한국에 들어 와서 이 꽂이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그때가 일본에 강압에 눌려 한일합방이 되었던 때와 같은때가 된다. 사람들은 이 꽂이 퍼지자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고 죄없는 프리베인에게 누명을 씌워서 망국초(亡國草)라고 불렸다. 뒤에가서는 '개만도 못한..' 이런 형용사로 '개'자가 추가 되고 '개망초'란 이름으로 고쳐 불려 졌다고 한다. 계란 노란자 색깔의 디스크(Disk)에서 수십개의 흰 꽃잎이 둘러있고 키는 약 8-12인치정도 된다.





**Sushi & Sake**

Lunch 11:00-2:00 Mon-Sat

Dinner 4:30-9:00 Mon-Thur  
4:30-9:30 Fri-Sat

5901 Wyoming Blvd. NE  
Albuquerque, NM 87109

phone (505) 797-8000  
fax (505) 797-4090

12:30-8:00 Sunday

- 엉겅퀴꽃(Musk Thistle)

4월 마지막 주에 첫 엉겅퀴가 핀것을 찍은것이다. 아마 5월이 되어야 더 많은 엉겅퀴가 필것으로 보인다. 험상 곳에 보이는 까시 둑인 잎에 비해서 대조적으로 꽃은 아름답기만 하다. 꿀을 찾는 벌이 좋아 하는 꽃이다.



## Yummi House 雅敍苑

**Chinese Cuisine(중화요리 전문 식당)**

**Mon-Sun. 11:00am-9:00pm**  
**1404 Eubank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Phone(505) 271-8700**

**추천 메뉴**

삼선짜장면 \$8.95

삼선짬뽕 \$8.95

해물탕면 \$8.95

다섯가지 냉채 \$32.95

깐풍기, 닭고기 튀김과 마늘소스 \$8.95

탕수우육 \$11.95

양장피 잡채 \$17.95

- 배비 에스터(Baby Aster)

국화과의 참취속(Aster)에 속하는 꽃인데 영어이름 그대로 배비 에스터로 표기했다. 한국어로 의역을 한다면 ‘아기들국화’ 또는 ‘아기참취’라고 해도 좋을듯 하다. 꽃잎이 1/4인치 정도의 작은 꽃이다. 키도 4-6인치밖에 안된다. 하얀 꽃잎은 12개 내외가 되며 노란 디스크를 둘러싼다. 사막의 매마른 땅에도 잘 적응해서 자라는고로 Sand Aster란 이름으로도 불리지고 있다.





**ALLSTAR REALTY**  
OUR NAME SAYS IT ALL™

**김영신 부동산**

Associate Broker  
 7001 Prospect NE, Ste. 200  
 Albuquerque, NM 87110  
 R yongfre@yahoo.com

505.321.7695 (cell)  
 505.888.1700 (office)  
 505.888.9650 (office fax)



**KOREAN  
B.B.Q  
HOUSE**

**Sushi & Sake**

Lunch  
11:00-2:30 Mon-Sat

Dinner  
4:30-9:00 Mon-Thur  
4:30-10:00 Fri-Sat  
Sun 4:00-9:30

3200 Central Ave. SE  
 Albuquerque, NM 87106

phone (505) 338-2424  
 fax (505) 338-2426

- 페인트 브러쉬 (Paintbrush)

학명은 Castilleja 인데 약 200여종이 되고 색갈도 빨간색 이외에 오렌지색 또는 노란색의 꽃도 있다. 샌디아산 밑에는 빨간색의 페인트브러쉬가 많이 핀다. 유화를 그리는 화가가 빨간 페인트를 칠하다가 붓을 땅에 끼얹어놓듯 하다고 페인트칠하는 붓, 영어로 Paintbrush란 이름이 지어졌다. 서부 지역 인디언 땅에 많이 피는 이유로 인하여 ‘인디언 페인트브러쉬’라고도 부른다. 대부분의 페인트 브러쉬는 아직 꽃이 피질 않았고 엘레나 가예고의 이 꽃 하나가 4월 마지막 주에 처음 핀것을 찍은것이다. 5월이 되면 많은 페인트 브러쉬가 필것이다. 빨간색갈의 꽃잎으로 보이는게 실은 꽃잎이 아니고 꽃잎을 둘러싸거나 바쳐주는 포엽(苞葉, Bract) 이라 부르는 잎이다.



- 버베나(Verbena)

한국어로는 마편초(馬鞭草)라고 번역되는 버베나는 250여종의 다양한 종류가 있다. 샌디아산에서 피는 버베나의 학명은 Glandularia bipinnatifida인 데 분홍색이면서 보라색이 섞인 색갈의 화려한 꽃이다. 야생화라고 믿어지지가 않고 화원이나 온실에 있어야 될 꽃같이 느껴진다. 4-5월의 광야의 들판을 광야 아닌 우리들 집의 뒷 마당 정원같은 느낌을 주게 하는 꽃이다.



**ICHIBAN**  
Japanese Restaurant

一番 Japanese Food & Korean Food

Phone (505)899-0095  
[www.ichiban-alb.com](http://www.ichiban-alb.com)  
10701 Coors Blvd. NW Albuquerque NM 87114

**A-1**  
한국식품점

(505)-275-9021  
1410 Wyoming NE

Everything You Need for Oriental Food

Mon~Sat 10:00~6:00  
Sunday close

**Allstate**  
You're in good hands.

24-Hour Customer Service

**Armani Mansour**  
Licensed Sales Producer  
The Keller Agency

**Allstate Insurance Company**  
6321 Riverside Plaza Lane NW  
Albuquerque, NM 87120

Phone 505-898-8565  
Fax 505-898-7674  
[armanimansour1@allstate.com](mailto:armanimansour1@allstate.com)

- 줄기있는황금꽃  
(Stemmed Goldflower)

학명은 Hymenoxys linearifolia인데 우리말 이름은 찾지 못해서 영어이름을 번역해서 '줄기있는 황금꽃'이라고 제목을 부쳤다. 황금꽃(Goldflower)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잎사귀가 줄기에서 나오는 이 꽃과 잎사귀가 줄기에서 나오지 않고 밑에만 몰려 있는 Stemless Goldflower와 구별 하느라고 줄기있는 (Stemmed)이란 형용사가 앞에 붙었다. 메마른 땅에서 어떻게 이런 고운 꽃이 필수가 있을까? 생각하게하는 꽃이다. 연한 노란색의 꽃잎 12-14장이 진한 노란색의 디스크를 둘러쌓고 있으며 키는 10-50cm 가 된다. 잎이 가늘어서 Narrowleaf Hymenoxys란 이름으로도 불리운다.



**KOREAN  
B.B.Q  
HOUSE**

**Sushi & Sake**

3200 Central Ave. SE

Albuquerque, NM 87106

phone (505) 338-2424

fax (505) 338-2426

**HUONG THAO**

Vietnamese Cuisine

Lunch & Dinner • Beer & Wine

Tues - Sat 11:00am - 9:30pm • Sun 11:00am - 8:30pm



1016 B. Juan Tabo NE  
Albuq., NM 87112 • (505) 292-8222

Choices: pork, shrimp, chicken, beef, \$11.25 or any combo for \$11.95  
Extra large add \$3.95    Extra noodles \$2.25    Extra Meat 2.95



베트남 스프링롤



**USA Legal Group, Inc.**  
A Law Corporation  
**상해법, 교통사고, 파산법 전문 변호사**



Los Alamos 와 Albuquerque 인근에 산불로 인해 ash 가 집 혹은 건물로 날아들어 왔을때  
compensation 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직까지도 보험회사로 부터 Los Alamos 산불이나 Arizona 산불의 연기와 재로 인한  
피해보상 비용을 받지 못하셨거나 deny 되셨나요?

대부분의 화재보험은 외부지역에서의 재난 연기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clean-up cost이나 replacement cost 를 책임지고 배상해야 합니다.

New Mexico Attorney: Charles Lakins

Donovan Kang(도노반 강): 사무실Office 505-563-5538

직통Direct 505-563-5539

#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505-553-1009나 kuchachoy@q.com으로 연락주세요

## 알버커키 Albuquerque

### 한국식품점 Korean Grocery

A-1 Oriental: 1410 Wyoming NE ABQ (505-275-9021)  
Arirang Oriental: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Dinho Oriental Market 6207 Montgomery Blvd NE ABQ (505-883-2665)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Arirang Restauran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Fu-young 3107 Eubank #16 NE ABQ (505-298-8989)  
Fuji Yama: 5001 Central Ave NE ABQ (505-265-9774)

Ichiban Japanese: 10701 Coors Rd NW ABQ (505-899-0095)

I Love Sushi: 6001 San Mateo Blvd NE (505-883-3618)

Korean BBQ: 3200 Central Ave SE ABQ (505-338-2424)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Pacific Rim Asian: 10721 Montgomery NE ABQ (505-271-0920)

Sakura Sushi Grill: 6241 Riverside Plaza NW ABQ (505-890-2838)

Samurai: 9500 Montgomery NE, ABQ (505-275-6601)

Shogun: 3310 Central Ave SE, ABQ (505-265-9166)

Sizzler: 7212 Menaul blvd. ABQ (505-833-5755)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BQ 87109 (505-797-8000)

Yen Ching: 4410 Wyoming NE, ABQ (505-275-8265)  
Yummi House: 1404 Eubank Blvd NE, ABQ (505-271-8700)

### 건축/페인트 Painting

1st Choice Painting  
Mr. Han Cho /조한욱  
1113 Lawrence Dr., NE ABQ, NM 87109 (505-228-0393)

### 공인회계사 CPA

MTM Accounting Service  
문만길: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5850 Eubank NE, 2270 Wyoming NE, 9411 Coors NE, 1418 Juan Tabo NE, 6124 4th St NW, 1903 Coors SW, 11816 Central SE, 4312 Coors SW, 1649 Bridge SW, ABQ (505-999-8222)  
Stadium Liquor 1306 Broadway SE ABQ, NM (505-242-8542)

### 부동산 Realtors

김영신 Yong Shin Kim: Jade Southwest Realtors (505-321-7695)  
수잔리 Susan Lee: Coldwell Banker (505-934-8949)  
이준 June Lee: Ready Real Estate (505-730-6178)

최귀분 Gui B. Bonaguidi:  
The Ingles Company Realtors (505-828-1366)

### 세탁소 Dry Cleaners

Barbone's Cleaners: 3812 Carlisle Blvd NE (505-881-4466)  
Executive Cleaners: 1214 Juan Tabo Blvd. NE ABQ, NM 87107 (505-299-5858)

Kitch Cleaners: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Laundromate: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NM 87108 (505-266-3231)

### 신발 Shoes

Rio Shoes: Coronado Mall 6600 Menaul NE ABQ (505-883-9009)

### 의류 Clothes

Best Outlet: 3300 San Mateo Blvd NE, ABQ (505-884-2202)

Dot Clothing Co: 7200 Montgomery NE Suite C, ABQ (505-830-9400)

GEM X Imports 10701 Coors Rd. NW ABQ, NM 87114 (505-899-3420)

J-1 Import 4410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1-6355)

NEXT Clothes/Gift 4201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9-8627)

###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Hair & Co(황경희): 5901 Wyoming Blvd., NE (505-797-8087)

Hair Dynamic(Ashley): 1500 Wyoming Blvd. NE (505-296-2335)

Matthew Lee's Hair Style(홍정희): 11901 Menaul NE (505-271-1056)

Nob Hill Barber Shop (Sunny): 3408 Central Ave SE (505-256-0707)

Plance Hair Salon(Tina): 4300 Ridgecrest Dr NW (505-907-9229)

Salon 123: 7114 Menaul NE (505-872-0301)

### 종교 Church

가톨릭 공동체: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BQ, NM 87110 (505-271-8031)

뉴멕시코 성결교회: 2801 Lomas Blvd. NE, ABQ, NM 87106 (505-238-3551)

샌디아 장로교회: 10704 Paseo Del Norte NE ABQ (505-823-1678)

알버커키 감리교회: 601 Tyler Rd NE Alboquerque (505-803-7716)

알버커키 침례교회: 3315 Tower Rd SW ABQ (505-331-9584)

주님의 교회: 12120 Copper Ave NE ABQ (505-903-2297)

### 주택용자 Loan Officer

김미경 Mikyong Kim (Homemortgage) BBVA (Office 505-206-9963)

고산식 Lonnie Ko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 (cell 505-379-0433)

### 치과 Dental Clinic

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Stewart P. Ahn 5920 Whiteman Dr. NW ABQ, NM 87120 (505-897-6889)

### 커피 재료 Coffee

Moons Coffee & Tea: 1605 Juan Tabo NE, ABQ (505-271-2633)

### 태권도 TaeKwonDo

Dynamic taekwondo academy 5850 Eubank Blvd ne B-35 ABQ, NM 87111 Master Jaeshin Cho (505) 296-0336

### 한의사 Acupuncture

Dr. Chang: 4716 Central Ave SE, ABQ (505-710-7504)

Dr. Park: 6501 Eagle Rock Ave, NE Building A #B 87113 (505-514-2900)

### 화랑 Gallery

Park Fine Art Gallery(박영숙): 20 First Galleria Plaza NW, Suite #27 (505-764-1900)

### 화원/원예 Nursery

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BQ (505-345-6644)

### 사진관 Star Image

6600 Menaul Blvd. C-4 Abq, NM 87110 (505)883-3112

### 중재서비스

ADR-Mediation Service Sue 1614 Betts Court NE, ABQ, NM 87112 (505-332-9249)

### 단요가 Dahn Yoga

알버커키 505-797-2211  
커튼우드 505-792-5111  
산타페 505-820-2211  
다운타운 505-262-2211  
이스트마운틴 505-286-3535  
[www.dahnyoga.com](http://www.dahnyoga.com)

#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505-553-1009나 kuchachoy@q.com으로 연락주세요

## 리오란초

### Rio Rancho

#### 한인 식당

#### Korean Restaurant

Maki Yaki: 4300 Ridgecrest Dr. SE Suite #O Rio Rancho, NM 87124

##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111 Rio Rancho NE, Rio Rancho (505-994-8855)

## 클로비스 Clovis

### 종교 Church

클로비스 순복음 교회 Gospel Clovis Full Korean: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62-4510)

## 로스 알라모스

### Los Alamos

## 건강식품 Health Food

인성내츄럴: Los Alamos (505-662-9681)

### 종교 Church

산타페 한인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505-412-5420)

## 산타페 Santa Fe

#### 한인 식당

#### Korean Restaurant

Maki Yaki: 3003 S. St. Francis Dr., #C, Santa Fe (505-820-1930)

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

Osaka (Traditional Japanese Grill): 3501 Zafarano Dr. Santa Fe, NM 87507 (505-471-6698)

### 종교 Church

New Beginning Church  
480A County Rd. 84 Santa Fe, NM 87506  
(505-577-4572) (cell 505-577-4572)

### 겔럽 Gallup

신발 Shoes  
Rio Shoes: 1300 I-40 Frontage, Ste 304B, Gallup (505-722-5396)

### 모텔 Hotel/Motel

Day's Inn: 3201 W. HW66, Gallup (505-863-6889)

## 라스크루세스 Las Cruces

### 공인회계사 ACC

Kell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5800) (Fax 575-523-7700)

### 카페/ 선물 Cafe/Gift

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527-0098)

### 병원 Clinic

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56-0200)

### 종교 Church

라스크루세스 침례교회:  
1441 East Mesa Las Cruces NM 88001 (915-276-2773)

## 화밍تون Farmington

### 종교 Church

화밍تون 침례교회: 511 W. Arrington, Farmington (505-453-5461)

### 가게 Store

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

안녕하세요 미주 한인회  
도움이 필요합니다

폴리아미드 (나일론)PA6 PA66 구합니다 폐기되는  
카펫에서 까는 샤링가루  
, 펠랫 PA6 PA66  
섬유스크랩 취급하시는분  
또는 구해주시길 분 계시면  
연락주세요 양은 얼마든지  
관계없이 구매합니다

E-mail  
lsy1030@korea.com

MOBILE +82-16-850-9952  
번입니다

(우표 값이 61센트에서 64센트로 올랐습니다)  
광야의 소리를 1년 동안

집에서 받아 보시길 원하시는 분은  
본인 이름 집 주소

65센트 우표 12장

또는 8불 짜리 check를

payable to "KUMC"로 써서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집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If you want to receive this  
journal by mail, send by mail  
your name and address to  
following address with your \$8  
check payable to KUMC)

To: Voice in the Wilderness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To: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

**뉴멕시코주 한인회**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505) 271-1777 [www.kaanm.com](http://www.kaanm.com)

stamp here

65 cent 우표  
 봄이 후 밤으로  
 점어서 발송